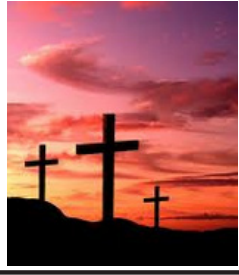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사순 제5주일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친구 라자로의 죽음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로 사랑을 드러내셨으니, 오늘 교회가 죄 때문에 죽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굽어보시어,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 4월 기도지향

- 김정원 베드로, 박말자 세실리아 가정
- 김정한 요한, 윤유나 글라라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통과 질병으로 시련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판공
- 사순 특강

#### 구역 미사와 판공 일정

- 1구역 : 4/12(토) 오후 7:30 정석원 라파엘 댁 12317 W. 102nd St. Lenexa
- 2구역 : 4/11(금) 오후 7:30 차호섭 요셉 댁 331 SE. Wood Ln. Lee's Summit

☞ 미사를 시작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목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미사 후,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집중 교리

- 일시 : 3/23(일) ~4/13(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성당
- 세례식 : 4/19(토) 오후 8시 예정(유아세례 포함)

☞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 성유 축성 미사 : 4/15(화) 오전 11시, 교구청 채플
- 주님 만찬 미사 : 4/17(목) 오후 8시, 밤샘성체초배(회관)
- 주님 수난 예식 : 4/18(금) 오후 8시,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부활 대축일 밤미사 : 4/19(토) 오후 8:30

#### 기타

- 부활대축일 꽃봉헌을 받습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오늘(4/6), 성주간 전례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미사 10분 전, 행렬을 위해 야외에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8	217	166/178	121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준구(파비아노)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김준영(요 셉)
차주	정수한(베 드 로) 정병훈(보니파시오)	차호섭(요 셉) 이우영(가브리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김정원(베 드 로)	박말자(세실리아)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김말자, 배복선, 신혜경, 조경희
차주	백문주, 박정욱, 박정자, 최은미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30	88명	297불	1,310불
	안경혜, 이지혜, 조지연, 김원철, 박동희, 문석찬, 류기범, 정준구		

사순 제5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4월 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사순 제5주일인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리라는 예언은 죄의 행실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대한 해방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성화해설

라자로야, 나오너라

“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돌리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요한 11,42-43)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봉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문을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예제 37,12-14 <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



◎ 주 님 께 서 자 비 가 있 사 옴 고 풍 요 로 운 구 속 이 있 나 이 다

○ 깊은 구멍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옴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제 2 독 서 : 로마 8,8-11 <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 음 : 요한 11,1-45<또는 11,3-7.17.20-27.33-45>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 쉐 마

## “돌을 치워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당에 있을 때, 성당 동산에 꽃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꽃씨가 뿌려진 땅에서 작은 새싹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땅은 방사능 물질이 섞인 비도 받아들이고, 황사가 섞인 비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땅은 생명을 품어주고, 작은 싹이 나도록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가는 바다를 생각합니다. 문득,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 인간들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방은 불을 보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불속으로 날아가는 나방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입구가 작은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습니다. 원숭이는 항아리 속에 있는 과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잡은 원숭이의 손은 항아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숭이는 사람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원숭이 또한 미련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방과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욕망이라는 불꽃을 향해 불쌍하게 날아가곤 합니다. 사람들도 원숭이처럼 욕심과 탐욕을 잡고서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친구들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과 욕심을 비워버려야만 우리는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우리의 낡은 허물들을 벗어버리는 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수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거울입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면서 온전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셨고, 마귀의 유혹

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순 제5주일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주변에서 부활 신앙을 말미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일생을 살기로 약속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행려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삶을 몸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분들이고 세상 것에 복종하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말씀에 복종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돌, 욕망의 돌, 시기의 돌, 분노의 돌, 원망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자유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조재형 신부 -

# 마중물

##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는 것을 재촉하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두려움, 노여움, 아이, 악처이다.” 좀 더 젊게 살려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순수를 잃어버리고 고정관념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왓지 뻔뻔스러워지고 우연한 행운이나 바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남을 섬기기보다는 기대려 합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만 듭니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지는 않는지,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하려 하고 누가 자리를 양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더 빨리 늙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젊은 날을 아쉬워해서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젊음을 우리는 이미 누렸으며, 그런 시절을 모두 겪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대견스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므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경륜이 쌓이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집만 늘어나고 속이 좁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남보다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경륜을 쌓아왔으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아랫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나이 듦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96. 교회가 ‘보편되다’(catholica)는 뜻은 무엇입니까?

천주교를 가톨릭교회라고 하는데, ‘가톨릭’이라는 말에는 ‘전체성’ 또는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뜻에서 보편적(가톨릭)입니다. 첫째,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므로 보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릭교회가 있다”(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교회 안에는 머리와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둘째, 교회가 보편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전 인류에게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30-831 참조).

□ 개별교회 혹은 지역교회는 교구를 말하며, 사도적 계승으로 서품된 주교들과, 믿음과 성사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각 개별교회는 보편됩니다.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교회가 존재한다.”(교회헌장 23항). 개별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으로 가장 탁월한” 로마 교회와 일치함으로써 온전히 보편된 교회가 됩니다. “모든 교회가, 곧 모든 신자가 이 교회와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욱 앞선 이 교회의 기원 때문이다”(성 이레네오). “실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여기(로마)에 있는 큰 교회가,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옥의 문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초라고 믿어 왔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성 막시무스; 가톨릭교회교리서 832-835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천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